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진관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집단 속 개인의 감성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양유연

집단 속 개인의 감성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진관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양 유 연

인 준 서

양유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동시대에서 예술이란 이전시대의 유희주의에 의한 미적 감상물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보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대안적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가들은 자신의 제도를 만들게 되고 그것은 일종의 사회를 움직이는 장치로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서 결국 보는 이들이 작품을 보고 그저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작품을 감상함으로서 의미 있게 사고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본인의 삶에 대해, 혹은 이 사회의 모습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이는 결국 인간의 감수성이 가진 특수함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는 주변 환경의 요소에 따라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인격체가 형성되며 감성 또한 생겨난다. 그리고 자라남에 따라 겪는 일생의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 감정의 변화를 거치게 된다. 본인은 감정의 변화를 예술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회화라는 매체를 선택하여 표현한다. 결국 그 회화작품은 개인이 겪는 사회적 경험의 산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회화작품이 갖는 존재이유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론에서 논할 본인의 개인전 ‘홍’은 이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첫 전시이기도 하다. 예술을 아름다움과 삶의 휴식을 제공하는 매체로서 받아들일 것인지, 현실에 대한 경계심과 솔직한 감정들을 표현함으로서 보는 이들에게 사회의 왜곡되어 가려져 있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예술을 할 것인지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다. 이 논문은 그 갈림길에서 하나의 선택하기에 앞서 고수하게 될 첫 발걸음인 것이다.

본인이 현재 그 갈림길의 시점에서 작업의 주제로 논하려 하는 것은 현실 사회에서 보이는 집단과 개인의 관계이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과 개인은 다수와 소수로 분류될 수도 있고 사회적 강자와 약자로 읽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소외계층, 혹은 집단 속에서 소외된 개인의 감수성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논자의 작품 연구와 그 소외된 존재로서 바라보는 현실의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집단 무의식과 페르소나, 그림자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인이 경험하고 느낀 집단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사회 속 소외된 존재의 감수성의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또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출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려 했다. 그리고 동시대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사회적 현상의 단면으로 관찰하고 그 현상들을 논하며 본인의 작품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현대의 사회 속에서 집단과 개인이란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을 뿐더러 그 관계가 매우 유동적이기도 하다. 이는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와 타인을 쉽게 배타하는 특성을 잘 보여준다. 70,80년대의 집단적 사고방식과는 다르게 2000년대의 현대 젊은이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특질로 인해 생긴 집단과 개인의 관계와 그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을 보고 느낀 관찰자 혹은 경험자의 시점으로 작품에 표현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 서론	1
II .현대사회에서의 집단과 개인	3
1. 집단 무의식과 페르소나, 그림자	3
2. 사회현상으로 본 집단과 개인	8
III .개인의 감성적 결과물로서의 작품	13
1.삶의 투영으로 바라본 인물들	13
2.소외적 존재로서의 감성과 표현법	17
IV .작품분석	21
V .결론	36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돌이킬 수 없는, (각)116.7x91cm, 2009	21
【작품2】 그 때의 잔상. 145.5x112cm, 2009	23
【작품3】 헤드라이트, 45.5x 53cm, 2009	25
【작품4】 아무 이유도 없이, 130.3x97cm. 2009	27
【작품5】 잉여공간, 97x130.3cm, 2010	29
【작품6】 우리집, 72.7x91cm, 2010	32
【작품7】 귀가, 100x90.7cm, 2010	34

I. 서론

사회적 맥락에서 인간의 생활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동체 안에서 인간은 살아남는 생존법을 익히고 자신만의 삶의 잣대를 형성해 간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 사회 속 인간들은 그 집단을 반영하는 인격체로서 성장한다. 결국 인간은 사회의 성격이 투영된 거울 같은 존재인 것이다.

인간 감수성의 개인적 특질은 자라오면서 겪은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쳐 그 시기마다 개인의 감수성과 성향은 많은 변화를 거치며 형성된다.

특히 청소년기 때 겪은 환경에 의해 하나의 인격체가 비로소 본인의 독립된 성격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라 생각된다. 보고, 배우고, 듣고, 말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사춘기라는 제 2차 성장 징후를 겪으며 변화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던 유아기 때와는 달리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인간은 본인의 감정보다는 주변 인격체들의 시선에 가치를 더 부여하기 시작한다. 내가 만족하기 위한 행위보다는 주변인들의 이목에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따라 그 행위의 가치 판단이 달라진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본인의 감정에 얼마만큼 솔직해지냐에 따라 정도가 달라진다.

본인은 여기서 집단 속의 소외된 인간에 중점을 두어 작품 연구를 논하고자 한다. 어느 집단에나 무리는 존재하고 소수자 또한 존재한다. 이 소수자들은 집단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이거나 집단에 속하길 스스로 거부하는 아웃사이더로서 존재한다. 이들의 감성은 다수의 감성과는 다른 특유의 감수성을 내포한다. 이들은 집단의 성격을 본인이 관찰자의 시점으로 바라본다.

작품에는 작가 본인의 투영된 인격체로서의 생명체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 생명체들은 허구적 인물로서 작가의 머릿속에만 등장하는 캐릭터였다가 작가의 시선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존재하는 인격의 부산물로서 화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듯 작품에서 드러나는 변화들은 곧 작가의 작업개념이 변화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 개념의 변화가 결국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가 변화하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본인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한 인간이 청년기를 지나면서 어떠한 자아의 변화를 겪는지에 대해 작품으로서 말하고자 했다.

본인은 스스로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식이 덜 이루어졌을 시기인 초기에 개인 내면의 상상 속 세계의 이야기를 다루어 작품을 진행했다면 이 시기를 지나 사회적 존재로서 본인이 느낀 현대의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집단들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는 그 현상을 겪고 느낀 결과물로서 다른 작품으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초기의 작품이 공상 속에서나 등장할법한 비현실적인 캐릭터가 주로 이뤄졌었다면 후기에 다다르면서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매우 현실적인 성향을 띄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혹은 실제로 본인이 관찰한 주변 인물이거나 신문, 기사, 잡지에 등장하는 일상의 인물들로 화면 속 캐릭터들이 대체된 것이다.

다시 말해 눈자는 집단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직접 체험하는 집단 속 무리로서가 아니라 그 집단을 벗어난 타인, 관찰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집단 속 개인이란 소외된 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집단에 속한 무리 속의 개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시선의 결과물로서 작품이 존재하게 된다.

Ⅱ. 현대사회에서의 집단과 개인

1. 집단 무의식과 페르소나, 그림자

“융(Carl Gustav Jung)¹⁾ 심리학에서는 인격 전체를 정신이라고 부른다. 정신은 의식적 및 무의식적인 모든 사고, 감정,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정신은 개인을 규정하고 그가 속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그에 의하면, 정신은 상호작용을 하는 두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의식의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의 수준이다. 무의식은 다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별된다.

정신 속에서 개인이 직접 알고 있는 것은 의식이다. 의식은 사고, 감정, 감각, 직관 등 네 가지 심적 기능을 통해 성장한다. 이 기능들 중 어떤 기능을 우선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기본적인 성격이 달라진다.

또한 태도가 내향성이나 외향성이나에 따라 의식의 방향은 결정된다. 내향성의 태도는 의식을 주관적 세계로 향하게 하며, 외향성의 태도는 의식을 객관적인 세계로 향하게 한다. 이 성향들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눈에 잘 띄고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집단 무의식은 그 존재가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개인

1)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 1875-1961),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연상 실험을 창시하여, S.프로이트가 말하는 억압된 것을 입증하고, ‘콤플렉스’라 이름 붙였다. 분석심리학의 기초를 세우고 성격을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나눴으며 개인의 무의식과 집단의 무의식적인 고태형(態型)을 신화나 민화 속에서 찾았다.

무의식과는 구별되는 정신의 일부이다. 개인 무의식은 의식적이었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집단 무의식의 내용은 개인의 생애 속에서 한 번도 의식적이었던 일이 없다.

집단 무의식의 여러 가지 내용은 태고유형 또는 원형이라 불린다. 그는 출생, 죽음, 권력, 신, 영웅, 악마, 태양이나 강 따위의 자연의 대상 등 수많은 것들을 태고유형이라 서술하였다. 태고유형들은 집단 무의식 속에서 각기 별개의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서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영웅의 태고유형이 악마의 태고유형과 결합하면 ‘무자비한 지도자’ 타입의 인간이 된다.”²⁾

“융(Jung Carl Gustav)은 모든 인간의 인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태고유형으로 페르소나(the persona), 아니마(the anima) 아니무스(the animus), 그림자(the shadow), 자기(the self) 등 네 가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본인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태고유형 중 ‘페르소나’³⁾와 ‘그림자’가 본인의 작품 개념과 상응한다고 생각한다.

인격에 있어서의 페르소나의 역할은 유익할 수도 있고 유해할 수도 있다. 개인이 자기가 연출하고 있는 역할에 너무 말려들고 사로잡혀 자아가 이 역할과만 동일화하기 시작하면, 그의 인격의 다른 측면은 제거될 것이다. 이와 같이 페르소나에 압도된 사람은 자기의 본성에서 소외되고, 지나치게 발달한 페르소나

2) 켈빈 S. 홀(Calvin S. Hall, 1909, 심리학 교수), 융 심리학 입문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1973, 41p~55p

3) 본래 페르소나(Persona)란 극중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쓰는 가면을 말한다. 개인은 페르소나에 의해 반드시 자기 자신의 성격이 아닌 성격을 연기할 수 있다. 페르소나란 개인이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가면 또는 외관이며,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한다. 페르소나는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페르소나에 의해 우리는 못마땅한 사람도 포용하고 사람들과 친교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이득이나 업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회생활과 공동생활의 기반이 된다. - 켈빈 S. 홀(Calvin S. Hall, 1909, 심리학 교수), 융 심리학 입문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1973, 57p

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인격의 부분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긴장 속에서 살게 된다.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화되는 것을 팽창이라고 부른다. 한편 이런 사람은 자기가 대단히 역할을 잘한다는 생각에 지나친 자존심을 갖게 되며 또 강요하기를 좋아한다. 그리하여 때때로 이 역할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여 같은 역할을 하도록 요구한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는 그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비참하게 만든다. 자기의 페르소나를 자식에게 투영하는 부모도 있는데, 그 결말은 불행하다.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풍습이나 법률은 집단 페르소나의 표현인데, 이것들은 개인의 욕구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행동 기준을 집단 전체에 강요한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페르소나의 팽창의 위험은 자명한 것이다.

한편 페르소나의 팽창은 기대되고 있는 수준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이나 자책감을 느끼게 한다. 그 결과 따돌림은 받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무의식적 위선자이기보다는 의식적 위선자인 편이 나으며, 자기를 기만하기보다는 타인을 기만하는 편이 낫다. 페르소나는 인간 존재의 하나의 사실이며 어떤 형태로든 표현되어야 한다.” 4)

융의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모두 자기만의 인격체에 여러 페르소나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주변 환경에 의해 각각 다른 모습으로 표출된다. 결국 본인의 페르소나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나 견디지 못함의 결과이다. 그것을 소수의 누군가에게 혹은 다수의 무리들에게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에 대한 분출을 대신 하는 것이다. 특히 피지배자의 입장보다는 지배자의 입장에 있는 인격체가 보다 뒤틀린 형태로 페르소나가 분출되는데 이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들이 쉽게 겪을 수

4) 칼빈 S. 홀(Calvin S. Hall, 1909, 심리학 교수), 융 심리학 입문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1973, , 59~60p)

있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찾아 볼 수 있다.

“물의 거울은 들여다 본 사람은, 물론 먼저 자기 자신의 상을 본다.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자는 자신과의 만남을 무릅쓰게 된다. 거울은 아첨하지 않고 그 안에 보이는 것을 충실하게 보여준다. 즉 연극배우의 가면인 페르소나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세상에 내보이지 않았던 그 얼굴을 충실하게 내보인다. 거울은 가면 뒤에 있으며, 진정한 얼굴을 보여준다.” 5)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작가의 페르소나들이다. 이 각각의 다른 형태와 성격으로 그려진 인물들은 작가의 심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캐릭터로 탄생하거나 변형된다. 그들은 한 인격체속의 여러 페르소나들이 팽창을 하듯이 작품 속에서 은유적인 행위나 사건들로 팽창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본인의 개인전 ‘홍’의 비평문에서 말하듯이 페르소나는 작품 속에서 주 인물들과 동등한 입지 혹은 다른 인격체로서 등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원래의 인격체를 넘어선 지배자, 압도적인 존재가 되어 버린다.

“얼굴이나 정체를 감추는데 썼던 껍데기, 가면의 용도가 과잉되면 그것은 하나의 독립된 분신, 페르소나로 재탄생한다. 페르소나는 이제 나를 감추는 가면이 아니라 나와 대등한 존재이자, 압도하는 존재로서 힘을 갖기 시작한다. 페르소나는 마치 에일리언이나 초사이언처럼 진화를 거듭한다. 그리고 이들이 마침내 이르는 곳은 ‘주체의 자리’다.” 6)

칼 융은 인간은 천 개의 페르소나를 지니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쓰고 관계를 이루어 간다고 한다. 페르소나를 통해 개인은 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고 자기 주변 세계와 상호관계를 성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페르소나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심리구조와 사회적 요구 간의 타협점에 도달

5)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 1875-1961), 원형과 무의식 Archetyp und Unbewusstes, 127p

6) 도선미, ‘홍’ 전시 서문 중 발췌 (양유연 개인전 ‘홍’ 2010. 1. 29~ 2. 9)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게 해 주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듯 사회 속 집단과 개인은 유동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긴밀하게 변형시켜 가는데 개인이 집단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태고유형 중의 또 다른 요소인 그림자(shadow)는 인간의 기본적인 동물적 본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인간이 공동사회의 없어서는 안 되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자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적인 정신을 잘 길들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신을 길들이는 일은 그림자의 여러 가지 징후를 억압하고, 그림자의 힘에 대항하는 강한 페르소나를 발달시킴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아와 그림자가 서로 사이 좋게 어울리면, 개인은 활기와 강인성으로 충만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자아는 본능에서 비롯되는 모든 그림자를 저해하지 않고 통과시킨다. 의식이 확대되고 정신 활동이 활발하고 원기 왕성해진다.

천재와 광기가 관계가 있다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대단히 창조적인 인간의 그림자는 때때로 자아를 압도하며, 그 때문에 그는 일시적으로 발광을 한 듯이 보인다.

그림자 속에 존재하는 ‘나쁜’ 또는 ‘부당한’ 요소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 이런 그림자의 무의식 속에 있는 습성 때문에 개인이 위기나 어려운 생활 장면에서 직면하게 되면 그림자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아에 힘을 미치려고 한다. 또 그림자가 사회에 의해 지나치게 억압당하면 때때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7)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개 자신보다 더 크고 짙은 그림자를 동반한다. 이 그림자는 본인의 내면을 투영시킨 거울 같은 존재, 즉 대리자의 모습으로 화면 안에 존재한다. 인물들의 성격이 어둡고 화면 안에서 상징하는

7) 켈빈 S. 홀(Calvin S. Hall, 1909, 심리학 교수), 용 심리학 입문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1973, 63~65p

의미가 크면 클수록 그림자의 의미 또한 커지는 것이다. 이는 현실 속 인간들이 갖고 있는 내면 속의 어두움, 밝음 이면에 있는 모습을 숨기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작품에서 형상화하여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숨기고 싶은 본성이 있을 것이다. 그 본성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내면 깊은 곳에 숨겨둔다. 왜냐하면 그런 본성이 타인들에게 보여져봤자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위를 깎아내릴 것만 같은 어두운 본성은 결국 일상생활에서가 아닌 특별한 시간, 일상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드러나게 된다. 감추고 참아왔던 본성이 표출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의 해방감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본인의 경우는 그 카타르시스를 작품 속에서 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 분출행위가 작업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일탈행위가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들보다는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적은 것이다. 작업행위가 충분히 그러한 일탈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작가들에게도 해당되는 경우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감상자들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자신의 일상에 대한 일탈을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충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역할이 예술이 갖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바람직한 일탈로서 말이다.

2. 사회현상으로 본 집단과 개인

“자기의 무의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의식의 억압된 요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한다. 자기 자신의 결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결점을

남에게 전가하여 공격하고 비판한다.” 8)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무엇보다 많다. 그런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은 엄밀히 말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다. 내가 방 안에 혼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하더라도 메신저에 접속되어 있는 친구들과 언제든지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싶으면 모니터 속 사진을 보고, 글들을 읽는다. 이 모든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점점 노출되어지기를 꺼려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군중심리, 집단중후군. 그렇지만 그 집단에 속한 나 자신은 철저히 개인적이며 이기적이다.

그렇게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우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혼자라는 것,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매체의 발달로 인간들의 소음에 언제나 노출되어버린 우리들은 독립된 공간에 나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느새 낯설어져버린 것이다. 사색이라는 것이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존재감이 무색해질 만큼 멀리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혼자인 것을 못 견디는 우리들은 둘 이상의 단체가 되어 버리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배척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무의식에서 느끼는 고독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혼자가 되기 싫어 집단에 의존을 한다. 그렇게 의존의 성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혼자 있는 단 몇 분의 시간도 두려워지며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길 바란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스스로의 외로움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간다. 그렇기에 자신이 정해놓은 몇몇의 의존할 존재가 아닌 낯선 타인에 대한 적대감은 그 의존도에 비례하여 더 커지게 된다. 그렇기에 집단과 집단과의 갈등, 혹은 집단과 개인의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들은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집단적인 성향을 가

8) 켈빈 S. 홀(Calvin S. hall, 1909, 심리학 교수), 용 심리학 입문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1973, 69p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균등을 이루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극단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본인은 이를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문명이 발달해가며 고도로 기계화되어가면서 변질되어진 우리 인간들의 비이상적인 성향인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제는 너무 흔하게도 어느 집단에나 있을 수 있는 ‘왕따’ 집단 따돌림 현상이다. ‘왕따’ 라는 말은 1990년 후반에 들어 생겼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인간이 존재하여 집단과 무리, 혹은 다수와 소수가 생김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필수불가결의 존재였을 것이다.

이것은 집단, 평균적인 개성의 단체, 혹은 무리에 다른 성격의 한 인격체가 존재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수준과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무조건 집단의 평균을 벗어나는 개인의 등장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그 개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집단은 더욱 결속을 다질 수 있다. 한 개인을 희생함으로써 무리는 서로의 믿음을 신뢰하고 그 신뢰감을 항상 자신들이 소외시킨 개인을 통해 확인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용의 그림자 이론과도 상응하는 것인데 그림자의 ‘나쁜’ 혹은 ‘부당한’ 요소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모습으로 집단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그러한 개인 내면 속의 갈등에서 고민하고, 더 나아가 집단 속 자신의 자리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행위에 대한 자책감을 누를 수 있을 정도로 그림자의 ‘나쁘고 부당한’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차별⁹⁾한다. 말 그대로 ‘차별’인 것이다.

9) 사전적 의미로서 말하자면, 차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차별 받는 사람들의 실제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회적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구별(differentiation) 그 자체가 아니라 선지배적(先支配的)인

이것은 나쁜 의미의 말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타인을 경계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사람을 구분하는 행위로서의 '차별'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본성에서 나오는 차별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환경적으로 혹은 제도화된 관행으로 인해 이뤄진 차별의 경우 자신의 그림자의 성향이 내포되어 있기 보다는 타의에 의한 습관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주체들의 유사성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주체들이 매우 무의식적일 때, 다시 말해 그들의 실제적 차이점을 의식하지 못할 때 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무의식적일수록 그 사람은 정신적인 현상의 일반적인 규범을 따른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개성을 의식하면 할수록 다른 주체들과의 차이점이 전면에 드러나고, 또한 그의 보편적인 기대에 그만큼 덜 부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의 반응도 예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후자는 개인의 의식이 점점 더 분화되고 확장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의식이 더 확대되면 될수록 의식은 더욱 더 많은 차이점을 인식하고, 더욱 더 집단의 규칙성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의 확장에 비례하여 경험적 의지의 자유는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¹⁰⁾

칼 융이 언급했듯이 집단 속의 한 개인이 규칙성에 어긋나는 개성을 드러내면 집단 속 무리들은 그 개인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시기하여 현대사회의 문제가 되는 현상인 '왕따'를 만들어버린다. 이것은 앞서도 이야기했듯 현대사회에 와서 단어로 정의가 됐을 뿐이지 태고적 집단을 이루면서 발생하게 된 인간의 본능에 의한 현상인 것이다.

요소에 의해 규정되는 내집단에 대한 입회승인의 기준이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별이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가의 여부는 특정사회 안에서 계층구분이 부인되느냐 승인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출처: 네이버 사전)

10) 칼빈 S. 홀(Calvin S. hall, 1909, 심리학 교수), 융 심리학 입문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1973, 14p~15p)

인간은 매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에 의지보다는 타인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 하는 습성이 있다. 거울 속의 나를 보듯 타인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켜 대리만족을 얻거나 반대로 자신 보다 못한 상황의 타인을 보고 우월감을 느끼며 그 만족감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인간사회에 계급과 경제적 구조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실하게 인간 삶의 표면에 드러나게 되었다.

잘사는 이가 못사는 이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치도 결국은 사회 집단 속 교육에 의해 인간들의 보편적인 사고에 이입이 된 것이다. 그 이치에서 잔존하는 미묘한 우월감과 수치감의 대비는 우리 사회에서 목인된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정할 때 자신보다 앞서 있거나 동경의 대상을 자신의 우위에 앞세워 놓고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도 한 예이다. 이것은 결국 사회적 통념에 의해 교육되어진 개념의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인간 집단의 성격을 교육시키느냐에 따라 집단이 갖는 삶의 논리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본인은 결국 한 사회라는 집단에 의해 개인이 갖는 감성의 폐해를 작품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을 그저 일반적인 동시대의 현상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결국 시대상의 폐해라는 비판적 시각으로 받아들일지는 작품을 보는 감상자의 몫에 달려있지만 그리는 이는 어느 정도의 견해를 갖고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Ⅲ. 개인의 감성적 결과물로서의 작품

1. 삶의 투영으로 바라본 작품 속 인물들

본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대체로 수동적 존재로서 화면에 등장한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느 것도 개척할 수 없는, 앞에 펼쳐진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는 약한 존재인 것이다.

작가들은 대개 두 갈래의 성격으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역사와 감정을 작업으로 풀어내 감성적 언어로 전환시켜 작품화시키는 작가와 개인의 역사와 감정은 철저히 배제시킨 채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화제나 기사거리를 작품화시키는 작가로 나눌 수 있다.

두 작가적 성격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작품에 동시대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는 사회 속 개인의 모습을 개인의 이야기로 작품에 투영시킨다는 점에서 외부로부터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사회의 모습을 작가를 통해 작품에 투영시킨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통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자의 경우는 사회 속 개인으로서 ‘합집합’ 이라고 말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사회와 개인으로서 ‘교집합’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의 경우는 작품의 성향이 전자에서 후자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미술사에서 개인의 일상에 대한 서사를 구축하는 작품이 진정성을 획득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90년대부터의 일이다. 70,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미술은 개인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집단에 의한, 민중에 의한 반

대편에 있는 누군가를 대항하기 위한 미술작품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상처와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묻어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의 미술이 보다 현실의 삶에 천착하는 작품에 눈에 뜨게 된 것은 이 이후 세대인 20대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민중미술의 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에는 거대담론에 의한 집단, 군중, 무리를 강조하는 작품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개인의 일상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대해 다루기엔 개인의 권리나 의무가 공권력에 의해 박탈당하기 쉬웠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일궈놓은 운동권 시기를 토대로 90년대 들어 미술은 개인의 감수성에 좀 더 천착하는 작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개인의 권리가 존중받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 시작하자 거시적 시점에서 미시적 시점으로 변화한 일상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2000년대 우리의 일상과 90년대 젊은이들의 일상에 대한 시각과 감정은 매우 달라져 버렸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시기의 청년들은 윗세대가 일궈놓은 뜻을 이어받고 그 속에서 자기 삶에 대한 반성과 의미를 작품에 반영했다면 이미 2000년대의 우리들은 편협한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은 자본에 의한, 자본을 따라가는 상업적이고 잘 팔리는 작품들을 그리면서도 스스로 수치심 하나 느끼지 못하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명목하나면 뭐든 다 용서가 된다는 믿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인 것이다. 이들의 작품에서는 정작 본인의 작품 속에 배제되어 있다. 자신이 바라보는 삶을 외면하고 그저 타인의 기준에 의해 작업을 하는 것이다.

작가의 삶이 작품에 얼마나 투영되느냐에 따라 작품의 개인적 성향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논자의 작품의 경우 초기작의 화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소녀’였다. 우리의 상상 속에 들어있는 소녀의 이미지는 매우 순수하고 깨끗한, 우윳빛 피부를 가진 환상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논자가 겪었던 사춘기 시절의 소녀기는 앞에서 말한 환상속의 소녀와는 전혀 달랐다. 삶 속에 찌든, 여드름투성이의 맑지도, 깨끗하지 않은 그저 어둡고 조그마한 덩어리였던 것이다. 우리는 왜 현실과는 다른 상상속의 이야기들을 마치 실재인양 머릿속에 정형화시켜 놓은 것일까. 아름답고 예쁜 것에 대한 인간의 열망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한 열망은 결국엔 현실의 ‘소녀’들에게 갖출 수 없는 비이상적인 순수함을 부여한 채 자의도 아닌 타의에 의해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저 소녀를 욕망의 주체와 대상으로만 보는 사회적 통념으로 가득 차 버린 시선에 의해 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청소년기를 성장기라고 말할 수 있다. 성장이란 지속적인 변화 속에 앞으로 진보하는 과정의 것으로 이를 자아형성(self-formation)단계라고도 한다. 또 성장과는 다른 의미로 성숙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는데 성숙은 그 변화가 무르익어 완성을 이루는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을 말한다. 시기적으로 청소년기, 즉 십대들을 육체적, 정신적인 미완의 상태로만 놓고 이를 성장단계라고 본다면 그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모호해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성장단계라는 규정도 결국 어른이 되어버린 그들이 그어놓은 잣대에 불과하다. 결국 ‘소녀’라는 단어 속의 소녀들은 어른들에 의해 정제된 채 그 틀 안에 갇혀 버린 제한된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논자의 사춘기시절의 대변이기도 한 ‘소녀’들은 작품 속에서 매우 수동적이고 핍박받는 존재이기도 했다. 누추한 듯 절대 자신들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오직 뒷모습만을 보여주며 화면 속에서 자신의 우위에 있는 권력자에 의

해 농락당하고 그 권력자를 피해 도망 다니는 모습의 ‘소녀’ 들은 작가 본인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들은 매우 비현실적인 존재로서 작가의 망상 속의 세계에서만 등장하는 인물들이었다.

본인의 작품에서 이 ‘소녀’ 들의 등장횟수가 줄어가면서 작품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개인적 감정의 산물이었던 ‘소녀’ 를 포함한 다수의 작품 속 캐릭터들은 현실감을 완전히 박탈한 채 그저 망상 속을 헤매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작품 속에 망상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현실과의 괴리만 커졌고 본인은 그 괴리감속에서 현실을 회피하고만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건 스스로에게도 매우 솔직하지 못한 행위이기도 했다. 현실의 시름을 잊기 위해 망상 속에 갇혀 지내다가는 결국 현실의 자아를 영영 상실한 채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었다.

결국 그러한 시기를 거쳐 본인은 자아의 투영이라는 단계를 벗어나 자아의 시선을 투영한 주변 세상을 보는 방법을,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아직 많이 서툴지만 보다 더 진부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줄 알게 된 것이다.

이 시기 이후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알맹이’ 가 없다. 화면 안에 존재하는 인물과 공간들은 모두 ‘주체’ 가 아닌 ‘객체’ 이다. 그들은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수동적인 껍질인 것이다. 지정되어진 곳에서 지정된 감정을 분출하는 그것은 만들어진 것과 동시에 원래 그랬던 것처럼 연기를 해야 한다. 작가가 그들에게 그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모습은 현실의 우리들과 사뭇 닮아있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할 일을 부여받고 왜 해야 하는지 조차 사고하지 않은 채 그저 움직이는 현대 사회인들의 일상 모습이었던 것이다. 쉬운 예로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나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저 모두가 한다는 이유만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들의 행동들을 들여보자면 과연 이것이 자신이 갖고

있던 꿈의 실현 방법으로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이렇듯 남들이 다 하니까 그저 따라가는 군중심리를 가진 이들이 대부분인 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이다. 물론 그 속에서 진정성을 갖고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들은 매우 소수일 뿐이다.

작품에서 드러난 가장 큰 변화는 작가 본인의 내면을 그대로 투영시킨 비현실적인 인물들이 어느 순간부터 작가의 시선이 투영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다. ‘소녀’, ‘분비물을 흘리는 생명체’ 등의 실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본인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인물들이 화면에서 점차 사라지면서 구체적인 주변 인물 혹은 실존에 존재할 법한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실의 모습의 반영이 곧 작품의 화면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자 본인의 작품 속에 비현실적인 세계가 등장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마치 망상 속에서만 헤엄치던 자아가 현실의 모습을 직시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이 작은 삶의 인식이 본인의 작품이 변화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2. 소외적 존재로서의 감성과 그 표현법

앞서 말한 페르소나의 투영에 의한 작업 단계에서는 작품에 본인의 대리 인격체들만 존재할 뿐이었다. 말 그대로 현실의 모습을 배제한 채 작가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한 작품들이었는데 이후 ‘홍’ 개인전을 통하여 본인은 개인의 페르소나를 형상화한 작품들에서 현실을 반영한 작품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이는 작가 본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의 반영이기도 한데 결국 현실의 사회 속 한 개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본인의 삶에 대한 확인이기도 할 것이다.

본인의 작업은 매우 열은 농도의 물감을 수십 번 반복적으로 채색함으로써 화면

안에 깊이감을 더한다. 동양화 재료의 분채와 먹만을 사용하여 장지 특유의 흡수된 느낌을 주는 것에 중점을 뒀다. 종이 본래의 느낌과 물감의 고유색을 최대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동양화 재료는 서양화 재료의 불투명한 성질과는 다르게 물감 각각의 색채를 살려주며 서로의 겹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옅은 농도의 여러 번 채색하는 방법은 동양화 재료인 분채와 장지의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먹 또한 서양화 재료와는 다른 종이에 발묵하는 매우 특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법에 서투르면 다루기 힘든 고충이 있지만 충실한 방법으로 잘 표현만 한다면 그 장점을 몇 배로 활용하여 보여줄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재료의 특성을 그저 기교 없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만으로 표현하여 화면 안에 그 특유의 재질감과 깊이감을 표현하려 했다.

분채와 먹의 사용 말고도 본인은 드로잉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그때의 잔상〉이란 작품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색의 벽면엔 수많은 드로잉들이 가득하다. 이 드로잉들은 작가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 망상들과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모여 이루어진 형상인데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사사로운 감성의 표현물로 볼 수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글로 쓰는 일기의 이미지를 따낸 형상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드로잉 적 요소는 본인이 매우 놓치지 않고 작업 단계에서 가지고 가려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앞 문단에서 언급한 옅은 농도의 물감을 여러 겹 칠하는 기법은 자칫 화면의 단조로움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 단조로움을 배제하고 화면에 활기를 넣어 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드로잉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線)적인 개성이 강한 드로잉은 본인의 작업에 있어 평면회화의 단조로움과 답답함을 효과적으로 해소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작업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로서 인체의 훼손, 적출 행위는 결국 현실에

서 느끼는 고통에 대한 직접적인 시인이며 행위인 것이다. 이것을 화면에 그려냄으로 인해 작가 본인 또한 일상에서의 해방감을 느끼며 감정의 해소를 느끼게 된 것이다. 또 반복적으로 개인의 인체에 상처를 입은 소녀들이나 분비물을 흘리는 머리만 존재하는 생명체를 화면에 등장시킴으로서 감정의 표현을 비현실적인 등장인물의 상태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작업의 과정을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의 표현물로서 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작품을 대하는 태도는 나태해지기 시작한다. 그저 일기를 쓰는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전혀 바람직한 진전 없이 말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여러 작품이 기시감¹¹⁾을 줄 정도로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어디선가 본 듯한 이미지를 주며 결국 자기복제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어 버렸다.

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같은 느낌을 계속하여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버리자 더 이상 작업을 하는 의미조차 사라져 버린 것이 되었다. 작가 스스로가 본인의 작품에서 순수한 의미의 흥밋거리조차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유쾌한 작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점부터 본인의 작업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럽고 작은 변화에, 몇몇 타인의 시선에는 같은 작가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큰 변화에 당도했다. 개인의 경험과 기억의 흔적을 다루며 내적 감수성을 그려냈던 이전 작업과는 다르게 이 시점을 계기로 보다 더 나라는 개인에서 벗어나 사회라는 주변 풍경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자신의 고통이 가장 크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라고 호소하던 그림들이 세상의 밝음 이면에 있는 소외된 존재들의 모습에 시선을 돌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하기 시작했다.

직시하게 될 현실 때문에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헤쳐 버리는 것은 결국 슬픈

11) 기시감 既視感 : [명사]<심리>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언제, 어디에선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일. (출처 :네이버 사전)

일이다.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은 서로간의 경쟁만이 본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것 또한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권력자에 의해 너와 나는 마주하게 된다. 그 이후엔 서로를 ‘흉’ 하는 소모적인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위협하고 만다.

우리는 본인의 존재를 타인의 모습을 보고 확인한다. ‘저들이 괴로운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살만한 것이다’, ‘그들이 사는 것처럼 나는 왜 살지 못할까.’ 라는 자신의 물음에 스스로 답하며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결국 거울에 비친 것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다. 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대리자’의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 속 소외된 존재의 모습을 화면에 등장시킴으로서 본인은 그들, 혹은 본인의 감성을 화면 안에 재현하기 시작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보다 더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인 혹은 현 시대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로 되도록 표현하려 하였다.

IV. 작품분석



【작품 1】 돌이킬 수 없는, 장지에 채색, (각)116.7x91cm, 2009

【작품 1】

제목: 돌이킬 수 없는

재료: 장지에 채색

크기: (각)116.7x91cm

본인의 페르소나 화 된 캐릭터들이 화면 안에 함께 공존하며 등장한 서사적 구조를 가진 〈Sentimental Scene〉, 〈폭풍전야〉, 〈돌이킬 수 없는〉 이렇게 세 작품으로 이뤄진 시리즈 중 마지막 작업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 와서는 페르소나들의 갈등과 대립이 막바지를 맞이하여 결국 황폐해진 상황을 그렸다.

논문의 본문에서 말했듯이 개인의 인격 속에서 페르소나들이 분화를 이뤄가다 결국 대립되는 존재로 변모하여 서로 갈등관계가 되어 버리면 결국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그 상황을 분화된 캐릭터들로 묘사하였다.

언제나 어떤 관계든 간에 동등한 입장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본다. 이것은 어떻게든 주종관계, 혹은 상하관계를 이루어 서로를 규정지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말하자면 그 주종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 변화 가능한 유동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좀 더 우위를 차지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간다. 이러한 작가 본인이 느끼는 현실세계의 아픔다울 수 없는 상황을 화면 안에 표현하려 했다.



【작품 2】 그 때의 잔상, 장지에 채색, 145.5x112cm, 2009

【작품 2】

제목: 그 때의 잔상

재료: 장지에 채색

크기: 145.5x112cm

화면 안에는 존재하는 등장인물들과 풍경들이 전혀 연계성이 없고 따로 놓아져 있지만 이것들이 화면 안에 합쳐지면서 멜랑콜리(melancholy)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다. 마네킹 같은 형상의 존재, 이는 죽어있지도 살아있지도 않는 불완전한 상태의 감정덩어리이다. 뒤의 풍경에 등장하는 소녀도 사실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기억이 날듯 말듯 어렴풋한 모습들이 파편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잊고 싶은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있듯이 말이다.

화면에 등장하는 배경들은 모두 인위적인 것들이다. 현실에 존재할 법하지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풍경과 사물들인 것이다. 이는 비현실적인 화면을 그려냄으로서 작가 본인이 느끼는 현실에 대한 일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배경에 등장하는 희미한 드로잉들은 본인이 그 때 그때 느꼈던 일상에 대한 감정을 파편물들이 어지럽게 낙서처럼 그려져 있다. 이는 기법적으로 화면의 단조로움을 해소시켜주면서도 작가의 감정이 걸러지지 않은 그대로의 날 것 상태로 화면에 등장함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그림 속 내러티브를 읽히게 하는 요소로서도 작용하게 된다.



【작품 3】 헤드라이트, 장지에 채색, 45.5x 53cm, 2009

【작품 3】

제목: 헤드라이트

재료: 장지에 채색

크기: 45.5x 53cm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 같다. 아니면 그저 누군가가 나를 저 계단 앞에 가서 서 있으라고 시켰던 것 같기도 하다. 어떻게 서 있어야할지, 손을 어떻게 뒹야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순간 눈부실 정도로 밝은 헤드라이트가 나를 비쳤다. 그리고 그 찰나 카메라의 셔터가 눌렸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픽션이다. 작업을 할 때 허구적 상황을 머릿속에 그린 후 그것을 손으로 놀릴 때가 있다. 회화로서 가능한 것이 바로 가짜를 진짜처럼, 없었던 것을 있었던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작업 안에 등장하는 감정만은 진짜임을 말할 수 있다. 작가 본인이 느끼는 그 때 그때의 감정의 흔적들은 흡사 몸에 남은 흉터처럼 거기에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누군가에 이끌려 찍히기 싫은 사진을 찍어본 적 누구나가 한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다. 그 때의 그 누추한 마음만큼은 감추고 싶을 정도로 창피하지만 그것을 내색하기엔 모두가 그 마음을 모른다. 인간과 인간은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소통을 스스로 단절시켜 버리는 것도 한낱 인간들이다. 마치 사진을 찍히기 꺼려하는 사람을 억지로 앞에 세워두고 사진을 찍는 누군가처럼 말이다.



【작품 4】 아무 이유도 없이, 장지에 채색, 130.3x97cm, 2009

【작품 4】

제목: 아무 이유도 없이

재료: 장지에 채색

크기: 130.3x97cm.

어느 날 문득 초라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슬퍼졌던 기억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릴 적 품었던 순수한 꿈을 뿌옇게 물들어 버린 채 마음속에서 점점 지워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을 알아버린 순간 공허한 박탈감은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우리 앞에 놓여진 하루하루를 그저 견뎌가듯 살아갈 뿐이다.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싶었는데 결국 이상한 감정에 빠져버리는 우리는 병이 걸린 것일까, 현대인들의 자화인 것일까. 우리는 병을 앓고 산다.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는데 눈물이 흘렀다. 결국 또 나는 나 스스로를 추스르지 못한 채 그렇게 울고 말았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감정의 격분 상태의 미묘한 경계선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 선을 넘고 안 넘고는 타인의 스치는 손길 한 번에 달라져버린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 것이다. 그런 아무 이유 없는 슬픔. 공허함을 화면에 그리고자 했다. 이것은 본인의 자화상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초상화가 될 수도 있다. 혹은 그 누구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도 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조차 아닐 수도 있다. 그저 희미하고, 박약하고, 어디에도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갖고 있을 내면의 나약한 인간상이 아닐까 싶다. 기법적으로 뿌옇고 공허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여 붓의 질감을 거의 남지 않게 채색하였고 먹의 깊이감을 살리고자 엷은 채색의 농도로 수십 번의 덧칠을 반복하였다.



【작품 5】 잉여 공간, 장지에 채색, 97x130.3cm, 2010

【작품 5】

제목: 잉여 공간

재료: 장지에 채색

크기: 97x130.3cm

현대의 사회에서는 쓸모없는 것에 관대하지 못하다. 우리는 어느덧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개인의 삶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환영받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바람직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본인은 어느덧 쓸모없는 것들은 폐기의 대상이 되어 버려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 왜 모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 사회에 있어서 청년실업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내가 바로 그 청년이었고, 사회의 가치기준에 의하면 나는 실업자이며 소위 백수가 된 것이다. 나는 창피하지 않았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

손창섭의 <잉여인간>이라는 소설이 있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잉여인간이란 단어 뜻 그대로 남겨진, 혹은 소외된 불필요한 사람으로서 쓸모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이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이는 흔히 속어로 쓰이는 ‘잉여인간’의 뜻은 다르다. 인간을 인간이라 여기지 않고 물건 개념으로 나온 소위 1%에 속하는 강남 부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나머지 99%의 인간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도구로서의 인간들을 칭하는 ‘잉여인간’이란 말은 어느덧 우리의 실생활에서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비아냥거리기 위해선 던지는 가벼운 조롱의 언어로 변질되어 버렸다.

본인의 <잉여공간>이란 작업에서도 이 같은 ‘잉여’된 존재들이 ‘잉여’된

공간에서 서로를 외면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화면에 그려냈다. 창고 같은 버려진 공간에 이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그대로 방치되어 버린 존재들인 것이다. 흡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것이다. 특별한 직업 없이 남들의 눈에는 하루하루를 그저 흘려보내고 있게 보이는 우리는 ‘잉여인간’인 것일까. 88만원 세대의 청년인 우리는 결국 이런 존재로 역사에 남겨질 것일까, 그저 궁금할 뿐이다.

기법적으로는 불투명한 질감의 아크릴 물감을 혼합 채색하여 기존의 분채와 먹으로만 그린 작업과는 다르게 화면에 보여 지는 창고 같은 공간의 특성을 살려 두텁고 탁한 질감의 표현을 해 보았다. 인물들의 표현에도 최대한 투박한 느낌을 주어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무생물의 느낌을 주려 하였다.



【작품 6】 우리 집, 장지에 채색, 72.7x91cm, 2010

【작품 6】

제목: 우리 집

재료: 장지에 채색

크기: 72.7x91cm

사회적 약자는 강자에 의해 농락당한다. 용산 철거사태가 그러한 예이다. 빈곤층은 부유층의 돈놀이에 삶의 작은 빛조차 빼앗길 뿐이다. 나의 집이었던 그 따뜻한 곳이 차가운 시멘트덩어리로 변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멀리서 바라본 입장에서라도 마음이 아팠다. 서러웠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었다. 나의 뜯구름 잡은 그림들이 어느새 창피해졌다. 내 그림들을 아늑한 쇼파에서 음미하고 있을 그들이 미웠고 그들에게 입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내가 후회스러워졌다. 여태껏 그렸던 그림들이 다 그러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내가 그 일에 대해,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 부당하다고 외치기엔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다. 그들의 아픔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들의 일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싶진 않았다. 나의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내가 앞장서서 그들의 상처를 파헤치고 싶지는 않았다. 이 작업은 결국 나의 무지했던 머릿속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려주는 시발이 된 작업이다. 화면 안에 표현되어진 형태와 기법, 모든 것들이 변화를 겪었다.



【작품 7】 귀가, 장지에 채색, 100x90.7cm, 2010

【작품 7】

제목: 귀가

재료: 장지에 채색

크기: 100x90.7cm

앞의 〈우리 집〉이라는 작업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다. 결국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젊은 청년은 한국이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초점 없는 눈빛, 울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어두운 얼굴, 그리고 그의 뒤로 보이는 을씨년스러운 풍경, 마른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에 몸통을 관통당한 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변형인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우리의 책임인 것 일수도 있고 어른들의 책임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저렇게 시체같이 시퍼런 하늘에서 조차 자신의 몸이 시리도록 빛나는 달처럼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을 뿐이다.

V. 결 론

현대의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 개인의 삶의 반경은 더욱 좁아져 버렸다. 인간의 머리가 인지하는 세상이 넓더라도 직접 숨을 쉬고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고 교류하는 활동이 좁아지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감정교류의 결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곧 인간 개인의 감정이 황폐해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본론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으며 밝은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 또 한 가지고 있다. 인간이 내면에 숨겨놓은 이러한 어두운 단면을 화면에 그려내는 것이 나의 작업이라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밝은 것에만 익숙해지려 하고 눈부신 것만 으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모두가 맹목적으로 갈구하는 빛에 대한 허상일 뿐이다.

본인은 첫 개인전 ‘홍’을 통해 개인의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세상에서 소외된 상처 입은 이들의 모습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이 전시 이후의 작업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의 모습을 담아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세상의 모습을 왜곡시키지 않은 채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안에 담겨진 감성을 표현하고자 할 것이다.

작가의 일상을 소소하게 그려나가되, 그 안엔 사회의 밝지 못한 이면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여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보는 이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여태껏 알지 못했던 다른 현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거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들이 작은 계기가 되어 보는 이들이 자시의 삶에 자각하지 못하

고 있던 내면의 어떤 감정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본인의 삶에 대한 인식 또한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기도 한다.

현대 문명이 소비사회에 들어서면서 예술작품들은 상업성이 매우 부각되어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어느새 일반화되어버린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정성을 찾아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작가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작품은 솔직하면서도 풍자적이고 사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낼 때조차 자신들만의 언어로 작품의 미학을 완성시킨다. 그것이 바로 예술작품이라 말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시대의 소리를 실어내는 작가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작품이 남겨지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본인 또한 매 순간 보고, 느끼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투영하여 소박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일지라도 그 안에서 시대의 소리를 담아내는 행위를 지속하려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수미, 『한국 미술의 원더풀 리얼리티』, 현실문화사, 2009
- 문영민, 강수미, 『모더니티와 기억의 정치』, 현실문화연구, 2006
- 오광수, 『시대와 한국미술』, 미진사, 2007
- 오광수 선생 고회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한국현대미술 새로보기』, 미진사, 2007
- 코디 최, 『20세기 문화 지형도』, 안그라픽스, 2006
- 자크 라캉 Jacques Lacan, 민승기 역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 칼 구스타프 융 Jung, Carl Gustav,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원형과 무의식 Archetyp und Unbewusstes』, 솔, 2002
- 칼 구스타프 융 Jung, Carl Gustav, 권오석 역, 『무의식의 분석』, 홍신문화사, 2006
- C.S 홀(외), 최현 역, 『융 심리학 입문』, 범우사, 1985

ABSTRACT

A Study on the Sensitivity Expression of Individual in Group - Centering around My Work -

Yang, Yoo - Yun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t can be seen that art became alternative element to be able to implant awakening spirit to seers in social dimension than aesthetic appreciation material by aestheticism of former period in the same age. Artists get to make their own system and it came to undertake role as a kind of equipment to move society.

This researcher thinks that seers don't see work and appreciate beauty but they came to give momentum to be able to think meaningfully and think once more and look at own life or the form of this society with new view, by becoming like that. This researcher thinks that this is possible because of specialty that sensitivity of human beings has.

In accordance with element of surroundings to experience while one person lives, character body that only the person has is formed, and sensitivity appears. And, he(or she) gets to pass through the change of feeling by numerous events and accidents of life that he(or she) experiences in accordance with growing. I express change of feeling by choosing medium to be painting through genre to be art. After all, the painting work gets to exist as product of social experience that individual experiences. Then, I try to study existence reason that this painting work has and future role.

My private exhibition, scar which will be discussed in main discourse is the first exhibition that agony and thoughts for this estrangement between actuality and ideal were revealed concretely. Whether I will accept art as medium to offer beauty and life rest or I will do art to be able to show distorted and hidden form of society to seers by expressing caution spirit for actuality and frank feelings is my choice. This thesis is the first step to get to stick before choosing at the side road.

What I try to discuss as the subject of work at the point of time of the side road is the relation between group and individual which is seen in actual society. Group and individual to be said here may be classified into majority and minority, and they may be read as the social strong and the weak. In other words, I try to say work study of writer which appears as result material of sensitivity of alienation class or individual alienated in group and form of actuality to look as the alienated existence.

In this thesis, I tried to study relation between group and individual that I experienced and felt, which form of sensitivity of existence alienated in society there is, and how such forms are expressed artistically. And, I decided to observe form that moderns at the same age live as section of social phenomenon, discuss the phenomena and connection nature with my work.

In modern society, group and individual have relation organically, and the relation is flexible. This shows individualism of modern society and feature to exclude others easily well. Because modern youths in 2000 show extremely individual inclination conspicuously differently from collective way of thinking in 70s and 80s. I examined relation between group and individual which appeared by this property and the phenomenn and expressed in work from the viewpoint of observer or experience person who saw and felt it.